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상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1장 총서론

『산상설교』 상권 제1장, 인쇄 9~22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5:1~2

> ❓ **산상설교는 정말 지금의 나한테 하는 말일까, 그리고 왜 굳이 이걸 붙잡고 공부해야 할까?**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산상설교를 시작하면서 개별 구절로 들어가지 않는다. 먼저 이 설교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부터 묻는다. 출발점은 오늘날 교회가 천박하다는 진단이다. 그 원인을 성경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에서 찾는데, 특히 율법과 은혜 가운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짚는다. 이어서 산상설교를 잘못 읽는 세 견해를 하나씩 반박한다. 사회복음, 모세 율법의 해설로만 보는 견해, 세대주의다. 그리고 “산상설교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용서를 조건처럼 말하는 구절이 은혜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도 풀어 준다.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연구하고 실천해야 할 이유를 든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목적, 중생의 필요, 복의 길, 세상을 향한 증거다.

📜 절별 정리

📜 1. 왜 산상설교인가 — 성령의 이끄심과 교회의 천박성

로이드 존스는 큰 그림에서 시작해 세부로 내려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한다. 그래야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위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질문은 “왜 산상설교를 살펴야 하는가”이다. 그는 설교자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있다고

않았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인다. 또 하나의 이유는 당시 교회의 상황이다. 교회사와 부흥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천박성(깊이 없이 겉만 요란한 상태)이다. 그는 요즘 전도가 과거의 위대한 전도와 비교해 요란하고 놀랄 만한 수단에 기댄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 천박함이 거룩함과 성화를 이해하는 방식에까지 스며들어 있다고 본다. 성화는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 거룩하게 자라가는 과정이다.

1. 숲을 먼저 보고 나무로 내려간다
2. 본문 선택은 성령의 이끄심 때문이었다
3. 오늘 교회의 특징은 천박성이다
4. 천박함은 성화 이해까지 흐려 놓았다

📜 2. 성경을 대하는 바른 태도 —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천박함의 뿌리는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된 데 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고, 성경이 스스로 말하게 두지 않으며, 극단으로 치닫는 성향까지 더해졌다는 것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자료이자 유일한 권위다. 자연을 보고 창조주를 추론할 수는 있다. 그러나 주관적 체험에는 기댈 수 없다. 선한 영뿐 아니라 악한 영도 있고, 가짜 체험도 있기 때문이다. 로이드 존스는 계획을 세워 성경 읽는 일을 지지한다. 다만 읽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묵상 없이 다음 분량으로 넘어가는 기계적 읽기는 경계한다. 베드로가 경고했듯 바울서신을 읽고도 억지로 풀어 스스로 멸망에 이를 수 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선입관과 이론을 들고 성경에 다가가는 것이다. 이단도 대개 부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판단을 그르친 신실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기 이론에 만족한 채 성경을 읽었고, 구절을 반만 읽거나 한쪽만 지나치게 강조했다.

1. 성경이 유일한 권위, 체험은 기준이 못 된다
2. 기계적 통독은 유익이 없을 수 있다
3. 선입관을 들고 읽으면 성경을 비튼다
4. 이단은 대개 신실하지만 판단을 그르친 이들

성경을 읽고도 억지로 풀어 멸망할 수 있다는 경고

>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 3. 율법과 은혜 —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말 것

선입관의 위험은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서 가장 크게 드러난다. 한쪽 극단은 율법만 강조하는 율법주의다. 율법주의는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태도다. 이 입장은 복음을 도덕률 모음으로 바꾸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해야 할 일"로 만들어 은혜를 지워 버린다. 반대쪽 극단은 은혜만 강조하다 율법을 버리는 것이다. 바울도 이 오해에 부딪혔다. 그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가르치자, 어떤 이들은 "그러면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짓자"는 억지 결론을 끌어냈다. 바울의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였다. 로이드 존스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을 이렇게 풀이한다. 그 뜻은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대로, 그 이상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도 율법을 지키며 사셨다. 산상설교 자체가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고 말한다. 또 예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오늘의 은혜론이 "은혜 아래 있으니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나와 상관없다"는 안이한 형태로 흘렀다고 진단한다. 이 문제를 바로잡는 최선의 길이 산상설교를 정면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본다.

1. 율법주의는 복음을 도덕률로 만든다
2. 은혜만 강조하면 율법을 내던지게 된다
3. 율법 아래 있지 않음 = 정죄받지 않음
4. 그리스도인은 율법대로, 그 이상으로 산다
5. 해법은 산상설교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

> **로마서 5:20**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6:1~2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자"는 억지 추론에 "그럴 수 없느니라"로 답함

[1]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6:14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는 말. 그 뜻은 정죄에서 벗어났다는 것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마태복음 5:17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18

율법의 일점일획도 다 이루어진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20

우리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 4. 산상설교를 잘못 읽는 세 견해

로이드 존스는 “산상설교는 누구를 위한 것이며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고, 서로 다른 세 견해를 검토한다.

첫째는 사회복음이다. 사회복음은 기독교를 사회 개혁 운동으로 읽는 견해다. 이 견해는 신약에서 중요한 것은 산상설교뿐이라고 본다. 그 원칙을 적용하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전쟁도 끝난다고 주장했다. 로이드 존스는 이 견해가 이미 시대에 뒤처졌다고 본다. 1·2차 세계대전이 그 기초를 흔들었고, 여러 점에서 비판받을 바르트 운동조차 사회복음을 웃음거리로 만든 공이 있다고 평가한다. 더 큰 잘못은 따로 있다. 사회복음은 설교의 첫머리인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를 늘 건너뛰었다. 이 첫 말씀들은 누구도 도움 없이 스스로 이 설교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둘째는 산상설교를 모세 율법을 다듬고 바르게 해석한 것으로만 보는 견해다. 산상설교가 어떤 면에서 율법을 해설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팔복은 모세 율법을 완전히 넘어서는 영역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셋째는 세대주의다. 세대주의는 역사를 여러 시대로 나누고, 시대마다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일하신다고 보는 해석 체계다. 이 견해는 특정 주석 성경을 통해 퍼졌다. 로이드 존스는 성경은 하나뿐이라며 “아무개의 성경”이라는 표현 자체를 꺼린다. 세대주의에 따르면 예수께서 천국을 선포하셨지만 유대인이 거부했다. 그래서 십자가와 교회 시대가 일종의 때늦은 방편으로 끼어들었고, 산상설교는 주님이 재림해 세우실 왕국 시대의 법이다. 결국 지금 그리스도인과는 상관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1. 사회복음은 팔복을 건너뛰고 명령만 취했다
2. 첫 복들은 혼자서는 못 산다는 선언이다
3. 팔복은 모세 율법의 범위를 넘어선다
4. 세대주의는 산상설교를 미래 왕국 법으로 미룬다

> **마태복음 5: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태복음 5:4

애통. 사회복음이 무시한 출발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1~2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장면. 세대주의가 범위를 좁히는 근거로 씀

[1]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2]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 5. 산상설교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이다

로이드 존스는 세대주의 견해를 따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따져 반박한다. 산상설교가 지금 우리와 상관없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말도 우리와 상관없게 된다.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은혜로운 약속도 버려야 한다. 그러나 주님은 승천 이후에도 제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길로 이 말씀을 주셨다. 게다가 산상설교의 가르침은 하나도 빠짐없이 신약 서신서에도 나온다. 서신서가 오늘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이라면 같은 내용의 산상설교도 그렇다. 산상설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위엄 있게 풀어 놓은 것이다.

세대주의의 뿌리는 잘못된 천국관에 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다. 천국은 어떤 의미에서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와 있고, 지금도 오고 있다.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 곧 참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교회 안에 천국은 이미 임했다. 그래서 산상설교는 천국 생활의 완전한 표현이다. 마태는 유대인을 위해 복음서를 썼다. 유대인들은 메시야를 로마에서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해방할 분으로 기대하며, 천국을 군사적이고 물질적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마태는 천국이 본질적으로 영적이며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복음서 첫머리에

1. 소금과 빛의 말씀도 함께 버리게 된다
2. 산상설교 내용은 서신서에 다 있다
3. 산상설교는 새 계명을 풀어 쓴 것이다
4. 천국은 이미 왔고, 오고 있고, 올 것이다
5. 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된 사람의 삶이다

마태복음 5:13

"너희는 세상의 소금."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정체성

>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14

"너희는 세상의 빛." 세대주의대로면 우리와 무관해지는 말씀

>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16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는 약속. 지금 우리 몫

>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한복음 13:34

새 계명. 산상설교는 이 계명을 풀어 쓴 것

>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누가복음 17:21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천국은 영적 통치

>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가 기독교인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 6. 용서의 조건 — 이것은 율법이 아닌가?

남은 난제가 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묻는다. “남을 용서해야 용서받는다(마태복음 6:14)는 말은 율법이지 은혜가 아니지 않은가? 그러니 산상설교는 우리에게 해당하지 않는다.”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하면 복음에서 기독교 전체를 빼 버리는 셈이라고 답한다. 주님은 마태복음 18장의 빚진 종 비유에서도 같은 것을 가르치셨다. 주인에게 큰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자, 주인이 용서를 거두고 그를 벌했다. 이 가르침은 “내가 용서했으니 용서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보고 값없이 용서받았음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남을 용서하기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용서를 모르는 사람이다.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용서받았다고 편하게 상상하는 사람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영원 세계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용서는 구원의 값이 아니라 그 증거다
2. 빚진 종 비유도 같은 진리를 가르친다
3. 용서받은 마음은 용서를 거절 못 한다
4. 용서 안 하는 자는 자기 용서를 모른다

> **마태복음 6:14**
> 반론자들이 “율법적”이라며 내세우는 구절
>
>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 **마태복음 18:23~35**
> 빚진 종 비유. 산상설교와 같은 가르침을 주님이 반복하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26]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27]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

마태복음 18:35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그렇게 하신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7:23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기기만에 대한 경고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으로 용서를 받고 용서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 7. 왜 산상설교대로 살아야 하는가 — 네 가지 이유

마지막으로 로이드 존스는 산상설교를 연구하고 그대로 살아야 할 이유를 든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것을 위해 죽으셨다. 은혜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인 백성으로 삼으려고 자신을 주셨다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산상설교대로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

둘째, 산상설교만큼 중생과 성령의 내적 사역이 꼭 필요함을 보여 주는 것이 없다.

셋째, 이 말씀을 실천할수록 더 많은 복을 누린다. 배부름을 원한다면 신비한 체험을 찾아 집회를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는 말한다. 대신 산상설교의 요구를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한다. 그것이 복의 지름길이다.

넷째, 이것이 최선의 전도다. 교회가 먼저 할 일은 전도대 조직이 아니라 교회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비결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찾아온다. 그 예로 인도의 법무장관을 지낸 천민 계급 지도자 암베드카 박사를 든다. 그는 미국과 영국에서 기독교를 오래 살펴보고도 생명력을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서 열린 27개국 세계 불교 대회에 가서 불교가 살아 있는 종교인지 확인하려 했다. 로이드 존스는 이것을 우리에게 던져진 도전으로 읽는다. 교회사에서 참된 부흥은 성도의 삶이 산상설교와 일치할 때 일어났다. 산상설교는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어디서 오는지도 보여 준다.

1. 그리스도는 이 삶을 위해 죽으셨다
2. 팔복은 중생의 필요를 깨닫게 한다
3. 복은 체험 사냥이 아닌 말씀 실천에 있다
4. 최선의 전도는 교회의 삶 자체다
5. 부흥은 삶과 산상설교가 일치할 때 왔다

> **디도서 2:14**
> 그리스도가 죽으신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인 백성을 만드는 것
>
>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 **마태복음 5:6**
>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다. 복은 말씀을 붙들 때 온다
>
>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 **마태복음 5:3**
> 첫 복이 사람을 무력함 앞에 세워 중생의 필요를 보게 함

“산상설교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위한 것이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산상설교
마태복음 5~7장에서 예수께서 산에 앉아 제자들에게 하신 가르침이다.

팔복
산상설교 첫머리에 나오는 여덟 가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선언이다.

율법주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얻거나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태도다.

반율법주의
은혜 아래 있으니 율법이나 계명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보는 태도다.

사회복음
기독교를 사회 개혁 운동으로 보고, 산상설교를 적용하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선다고 믿은 견해다.

세대주의
역사를 여러 시대로 나누어 보는 해석 체계다. 이 견해는 산상설교를 지금 교회 시대가 아닌 미래 왕국 시대의 법으로 본다.

천국(하나님 나라)
장소이기 전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통치를 뜻하며, 이미 임했고 장차 완성될 나라다.

중생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교회의 천박함은 성경을 선입관과 한쪽 치우침으로 읽는 데서 온다.
- 율법주의도, 은혜를 핑계로 계명을 버리는 태도도 신약의 복음이 아니다.
- 사회복음·율법 해설설·세대주의는 모두 팔복이라는 출발점이나 천국의 본질을 놓쳤다.
- 산상설교는 “이렇게 살아 그리스도인이 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니 이렇게 살라”는 말씀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이다.
- 그리스도는 이 삶을 위해 죽으셨다. 교회가 이렇게 살 때 세상은 기독교가 살아 있는 종교임을 보게 된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